

2023. 08. 28(월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8월 27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

서울도서관장

오지은

2133-0200

도서관정책과장

김지혜

2133-0220

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: 3쪽

관련홈페이지
(서울도서관)

<https://lib.seoul.go.kr/>

서울도서관, 국제도서관협회연맹(IFLA) 친환경 도서관상 대한민국 최초 수상

- 전 세계 150개국, 1,500여개 도서관협회가 가입한 도서관부문 최고 권위의 국제 기구가 수여
- ‘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서울도서관의 친환경 프로젝트’ 주제로 제출
- <책읽는 서울광장> 포함 다양한 부문의 서울도서관의 ‘친환경 정책’ 시도를 높이 평가

- 서울도서관은 국제도서관협회연맹(IFLA)이 주관하고 세계도서관정보대회(WLIC)에서 시상하는 ‘친환경 도서관상’(Green Library Award 2023)분야에서 대한민국 최초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.
 - 국제도서관협회연맹(IFLA,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)는 전 세계 150개국, 1,500여개 도서관협회가 가입해있는 도서관 부문 최고권위의 국제기구이다.
 - 세계도서관정보대회(WLIC, 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)는 국제도서관계 동향 파악과 각국 도서관 현안문제 논의, 인적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세미나 개최 등을 위해 진행되는 행사로 해당 대회에서 전 세계의 우수한 도서관들을 시상한다. 현재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제88차 <세계도서관정보대회>가 진행 중이며, 8월 22일(현지 시각 기준) 최종 1~3위 수상자가 발표되었다.

서울도서관 오지은 관장이 대표로 수상하였다.

- 서울도서관은 ‘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서울도서관의 친환경 프로젝트’(Eco Project in Seoul Metropolitan Library for SDGs)라는 명칭의 프로젝트를 제출하여 캐나다와 이탈리아에 이어 3위로 수상하였다. 이번 수상은 공공, 작은, 학교도서관 등 대한민국 2만 1천여 개의 도서관을 통틀어 국제도서관 협회연맹(IFLA)이 수여하는 상을 수상한 국내 최초의 사례다.

- 서울도서관이 수상한 ‘친환경 도서관상’은 환경 및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한 전 세계 모든 도서관을 평가하는 국제적인 상이다. 이번 수상에서 크게 주목받은 활동은 세계 최초로 공공 야외도서관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자연 친화적 공간과 독서 활동을 제공한 <책읽는 서울광장>이다.
 - ‘책읽는 서울광장’은 도서관 앞 서울광장을 세계 최초로 ‘공공 야외도서관’으로 조성한 사례다. 시민들이 광장 위 푸른 잔디밭에서 특별한 독서 경험을 즐기고 자연과 교감하며 환경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. 푸른 잔디 위에서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펼치고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 가능한 5천여 권의 책을 비치하여 시민들이 편하게 ‘자연 속 문화생활’을 누릴 수 있게 했다.

- 이외에도 시민과 지역사회의 ‘환경 인식개선’을 위해 서울도서관이 펼친 다양한 캠페인과 프로젝트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. 서울도서관은 인류 공동의 목표인 ‘지속가능발전’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‘지속가능발전목표(SDGs, Sustainable Developments Goals)’ 17개 중 11개를 달성했다.
 - 대표적인 캠페인으로 서울도서관이 올해 처음 실시한 <도서관은 쿨하다 : 끄고,

도서관으로! (Off & Go Library) 캠페인이 있다. 혹서기, 혹한기 도서관 방문을 장려하여 가정 냉난방비를 절약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이다. 서울도서관 주도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170여 개의 공공도서관이 동참하고 있다. 또한 올해부터 <밤의 여행도서관> 사업을 추진하여 혹서기(7~8월) 시민들에게 더위를 문화예술로 식힐 수 있는 특별한 밤 독서 경험을 제공한다. <밤의 여행도서관>에서는 태양열을 이용한 조명을 활용하여 에너지 절감에도 기여하고 있다.

○ 이외에도 도서관 외벽의 '서울꿈새김관'에 사용된 현수막을 재활용하여 도서 대출용 대여 가방으로 만든 사례, '제로웨이스트 서울' 기조에 맞춰 1회용품 이용 제한과 분리수거에 앞장선 사례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.

○ 한편, 서울도서관은 환경 관련 강의와 프로그램, 북큐레이션을 운영하며 '친환경 플랫폼'으로서 시민 사회의 환경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왔다.

□ 최경주 서울특별시 문화본부장은 “서울도서관의 세계무대로의 도전은 도서관계의 혁신이었고, 그 과정 자체가 큰 배움이 되었다. 이번 수상을 통해 서울시의 우수한 도서관 정책을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영광이다” 라며, “이번 수상에 힘입어 앞으로도 서울시와 대한민국을 대표 ‘친환경 도서관’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붙임 1. 서울야외도서관 사진(별첨)

2. WLIC 사진(별첨)